광주 '미소금융' 신청자 살펴보니

일주일새 190명 대출 신청 신용좋은 부적격자도 몰려

자활 의지·구체 사업계획 있어야 선정 가능

"미소금융이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곳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사업계획과 자활의지 등 믿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랍 31일 광주시 서구 양2동 현장 민원실에 문을 연 미소금융 광주서구지점(지점장 김재철)은 지난 7일까지 190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전화 상담만도 하루 평균 150여건이 넘었다.

그러나 대출상담 결과 대출자격 기준에서 벗어나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방문객 100명 가운데 30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설정해놓은 자격 제한에 걸린 사람들이다.

미소금융 광주서구지점 관계자는 "애써 지점을 방문 상담하는 서민들이 많았지만 30%가량은 대출자격 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미소재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제 대출자 선정과정에서도 탈락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상담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뚜렷한 확신을 보여주지 않고 '묻지마 지원자금'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김재철 미소금융 광주서구 지점장은 "기본적인 대출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구상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사업을 막연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며 "무슨 일을 하는 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광주서구 지점은 이같은 상담결과를 종합해 ▲대출 희망자의 자활의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주변인들의 평판 ▲자기 사업장 확보 여부(자영업자인 경우 점포나 영업용 차량 등)를 대출 수혜가능 요건으로 꼽았다.

한편, 미소금융 광주 지점은 이번 주중 무등록 사업자 가운데 첫 대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무등록 사업자 지원의 경우 창업자금이나 시설 개·보수 자금 대출과 달리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생략돼 신속한 대출이 가능한 덕분이다. 금리도 다른 대출에 비해 2.5% 포인트 낮다. (문의 062-352-155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소금융 지원대상과 부적격사유

지원 대상자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소득·저신용계층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갚은 사람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사람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부적격자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인 사람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등 부정적 정보가 등재된 사람 -보유재산이 과다한 사람 (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채무가 보유재산의 50%를 넘는 사람 -정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미소금융재단에서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로 법원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 -신용정보전산망에 어음·수표부도 거래처로 등록된 사람

한국이지론 홈피서 신용등급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egloan.co.kr)에서 저신용·저소득층에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상당수가 현장에서 신용등급(7등급 이하)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발길을 돌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 오늘 개소

소상인 창업 자금 등 최대 5,000만원 지원

영세 소상인 지원을 위한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이 11일 문을 연다.

1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광양시 읍내리 상설시장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성웅 광양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소금융 광양점' 개소식을 갖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인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포스코는 서민자금 대출 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을 설립, 향후 10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해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한다.

대출한도는 상품에 따라 500만~5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4.5%로 일반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6개월~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대출사업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사회·심리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상인학교도 열어 창업 실무·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가족과 함께 美 가전전시회 찾은 이건희 前 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가족과 함께 전시장을 참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장녀), 이 전 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전무(차녀),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매매동향 관망 실적 개선주를 주목하라

올 초 글로벌 증시는 지난해 12월의 상승 흐름을 연장해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4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이나 실적개선과 같은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하는 심리는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월요일 알코아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스 시즌에 진입한다. 현재 금융권을 제외한 S&P500기업들의 4분기 주당순익(EPS)은 전년비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감소폭은 지난해 3분기의 25.5%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의 주가상승을 통해 상당 부분 반영이 된데다가, 최근의 상승장을 주도해왔던 IT주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매수주체인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어 금주에도 당분간 시장은 숨고르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의 숨고르기 흐름은 깊은 되돌림 국면으로 진행되기보다는 1,700선 주변에서의 제한적인 지수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출주에 대한 차익실현의 계기를 불러왔던 원화 환율의 급락세는 지난주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을 기점으로 점차 진정될 전망이다.

일단 금주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발표 동향과 이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반응이나 국내 외국인투자가들의 차익실현 움직임에 대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른 만큼 반도체주를 제외한 IT주 및 자동차 등 주요 수출주에 대해서는 저가매수를 서두르기보다는 비중축소를 통해 향후 장세에 대비하는 대응이 유리해 보인다.

이미 실적 전망치는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발표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종목장세가 틈새시장을 형성하기가 쉽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흐름이 예상되나 크게 개선된 투자심리를 바탕으로 활발한 종목장세는 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투신권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종목 선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금주는 적극적인 시장대응보다는 영향력이 높아진 실적변수와 외국인 수급의 전개양상에 대한 관망에 일차적인 무게중심을 두되 가격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조선주 및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권주,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 중심의 제한적 접근을 권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